

충남공공디자인센터

중장기 계획 수립 워크숍 자문의견

경기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이 영 범 교수

1. 센터 중장기 계획의 방향성

-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재생, 농어촌지역 활성화, 사회적 경제, 마을공동체 등의 영역을 포괄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센터 역할의 재설계 및 정체성 확립이 필요함
 - 센터의 도시, 건축, 조경, 공공디자인의 통합적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정립
 - 지역사회 변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센터의 기능의 재정립 모색 필요
 - 공공디자인을 넘어서서 도시, 건축, 조경, 경관, 공공디자인 등을 모두 통합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기능 확대 및 명칭변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
- 정책, 기획, 사업, 지원의 역할을 영역별로 설계하되, 각 역할이 서로 연계되어 센터의 활동을 통해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정립
 - 특히 정책 및 사업의 초기단계의 기획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전문조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
 - 도 단위의 통합계획 하에서 개별 지자체의 사업의 효과적 기획 및 수행을 위한 지원의 개념을 이해하고 지원체계 구축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함
- 공공디자인센터가 도 단위의 총괄계획과 지자체 개별단위의 실행계획이 연계될 수 있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정립
 - 중장기적으로 충남도 및 지자체 단위의 도시건축디자인을 통합적으로 기획, 관리할 수 있는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주체간의 '협력디자인'의 비전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
 - 도와 시군간의 연계, 시군간의 연계, 시군과 농촌과의 연계, 농촌간의 연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이해관계에 근거한 보다 입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됨

2. 공공디자인 계획의 지향점

- 가치 지향적 계획을 지향
 - 도시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을 것
 - 탄소저감형 도시환경 조성,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의 고민과 연계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의 품질향상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
 - 지역민의 일상생활 및 도시공공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지향적 계획을 추구할 것
- 지역성과 정주성 향상을 위한 통합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필요
 - 디자인을 지역성과 정주성이란 가치에 맞춰 통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도 단위, 시군간 권역단위, 시군단위, 농어촌단위 등의 구체적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 계획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
 - 물리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가치가 결합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계획의 시각과 접근을 융복합의 틀에서 새롭게 마련
-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에 대한 계획적 접근 고민
 - 쇠퇴도시의 현실적인 지역의 현안을 도시재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이드 맵의 수립이 필요함
 - 디자인과 장소, 지역경제가 통합되어 활성화될 수 있는 물리적, 사회적, 경제적 재생계획의 틀을 마련
- 지역 노후화된 유헴공간의 활용방안 마련
 - 폐교 및 공가 등의 노후화된 유헴시설을 새로운 도시활력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 등 검토
 - 도시기능의 재편 등에 따라 용도폐기된 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문화공간 조성 및 지역 유헴 건축자산을 활용하는 새로운 개발모델 마련·시행
- 지역 역사문화자원 및 건축문화자산의 보존 및 활용 계획 수립
 - 지역 건축문화자산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지역의 정체성 확보 및 경제 활성화 도모하여 지역 단위 정주성과 삶의 질 향상
- SOC 디자인 향상을 방안 마련
 - 기능·성능 위주의 SOC시설 조성의 패러다임을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

- 내포신도시의 공공건축물 및 공원 등의 공공공간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

3. 공공디자인 계획의 실행체계

- 기존 도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의 통합조정 필요
 - 공공디자인 계획의 실행의 근거인 조례를 시대적 변화에 맞게 조정
- 기존 센터의 조직과 전문성을 확대
 - 기존 센터 내 2개의 팀(정책팀과 지원팀)과 4명의 전문인력을 센터기능의 확대에 따라 조직 및 전문인력의 보강이 요구됨